



JP모건체이스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은행산업 규제강화 논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신용평가회사들은 JP모건체이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증권거래위원회(SEC)도 조사에 착수함.

- 5월 10일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함.
-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는 JP모건체이스의 투자손실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과 내부 감독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 신용등급을 AA-에서 A+로 하향조정하였으며, S&P도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하향조정하였음.
- 뉴욕타임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JP모건체이스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, 5월 15일 JP모건체이스의 주주들은 JP모건체이스의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.

■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원인이 헤지 거래가 아닌 자기자본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논란이 일고 있음.

- 미 의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,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'볼커 룰(Volcker rule)'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고 있음.
- 다수의 전문가들은 JP모건체이스의 손실이 헤지 실패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, 메릴랜드 대학의 로시(Rossi) 박사는 JP모건체이스의 손실이 수익창출을 위한 자기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.
-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산업 관계자들은 한 건의 투자손실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(Associate Press, 5/15 등)